

“괴로운 인생길의 해답”

요한복음 6:15-21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물려오는 군중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이러한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랐다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에서도 지켜 주실 것’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뱃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 기다림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풍랑이 일어나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물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 6:16-18)

제자들은 이미 해가 어두울때 배가 출발시켰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들어서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않던 큰 바람이 불더니 높은 파도가 치며 배가 뒤집힐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맞바람에 부딪혀 자기걸음 상태입니다. 환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피로하고 지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괴로이 노 젓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삶에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 같아서 나의 믿음의 단계가 괴로이 노 젓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를 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장벽이 있고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해도 그 있는 자리에서 노 젓기를 계속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렇

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2. 주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

“저물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막 6:47)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할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때 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역울함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물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 1)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폭풍과 파도가 있다.
- 2)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 3)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날날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너무 분주하다가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기울이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곧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임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3. 예수님을 우리 일에 초청하라

“저물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막 6:47-49)

위험에 빠진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안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불황일수 있습니다. 혹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일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다 우리가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일에 초청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신 4:7)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렘 33:2)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입니다. 에레미아가 왕의 진노를 당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아는 “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나가 동부 서주해도 일이 해결되지를 앓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질병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것 보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의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무엇 보다도 자기 신앙 정검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넘어 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감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과 운명의 근본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운명은 우리 손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6)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어느 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 주시고 맞으면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추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고 점점 담대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라는 말씀은 부르짖어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했고 잠 16:9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 16:1)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인간으로 작정을 해 놓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일은 고생만 실컷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내 인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4.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주님이 그 다음 배에 타시니 배가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말은 참 의미 깊은 말인 것입니다. 몇 시간을 배를 저어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전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타니까 한번 젓는데 열 번의 효과가 생겨서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이 가물어 비가 오지 않을 때 논에 물을 퍼 나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물을 퍼 나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퍼 날라도 그 넓은 벌판을 다 채울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번 오면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기적이 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병이어의 기쁨 후 풍량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기쁨 뒤에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경우를 봅니다. 오늘 말씀속 풍량을 만난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로 마무리 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짧게 자신의 기도제목(한가지 썩만)을 내어 놓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